

로컬, 룸펜, 경제적 인간, 곽하신 소설의 세 좌표*

김양선**

1. 서론-전기적 사실, 그리고 단절과 결락을 해석하기
2. 로컬-『문장』지의 세계관
3. 룸펜-전후 남성(성)의 형성(1)
4.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경제적 인간의 등장-전후 남성(성)의 형성(2)
5. 결론-잇힌 작가의 문학사

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대소설사 연구에서 잇힌 작가 곽하신의 소설세계의 전체 면모를 복원, 분석함으로써 문학사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곽하신 작품세계의 단절 내지 비연속성에 주목하여 식민지기와 전후로 시기를 크게 분절하고, 각 시기 작품세계의 특징을 로컬(식민 시기), 룸펜(전후), 경제적 인간(전후 일부 단편, 장편대중소설)이라는 세 좌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장 ‘로컬-『문장』지의 세계관’에서는 30년대 후반 『문장』지에 집중 발표된 곽하신의 소설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비애, 전근대적인 시

* 이 논문은 '2020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인간탐구, 전통과 실존을 가로질러 (일시 2020년 6월 18일, 주최 대산문화재단, 한국작가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토론을 맡아 부족한 논문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동국대 허병식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부교수

간의식, 로컬-향토에 대한 지향성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제 말기 문학의 한 흐름인 반(反)근대의 미의식을 구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3장 ‘룸펜-전후 남성(성)의 형성(1)’과 4장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경제적 인물의 등장-전후 남성(성)의 형성(2)’에서는 50년대 말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을 경유해 전후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에 진입한 한국사회의 현실이 한편으로는 룸펜, 루저 남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공리주의나 승자독식의 세계관을 체현한 남성이라는 대조적인 남성-젠더의 출현으로 형상화 된다고 파악했다. 50년대 말 ‘룸펜’ 소설들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허약한 남성(성)을 통해 보여주었다. 남성-젠더/지식인은 삶의 토대가 마련되지 못한 전후 현실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불안을 여성/아내에게 투사하거나 도덕이나 친밀성보다 생존을 도모하는 길을 취한다. 특히 4장에서 분석한 대중소설 〈여인의 노래〉, 〈무화과(無花果) 그늘〉에는 임신출세를 위해 동료를 배신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연애관계를 이용하여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성취지향적인 남성 인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체현한 경제적 인간들이 등장한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약육강식의 경제적 인간이 전후 남성 젠더로 구축되는 과정을 선악의 대립이라는 대중소설의 형식을 빌려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곽하진은 식민 시기 한국어로 글쓰기, 문학 하기의 마지막 세대에 해당한다는 점, 저널리즘적 세태묘사, 대중소설의 양식을 빌려 전후문학의 범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의 주변에서 외연을 확장한 작가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로컬, 전후소설, 룸펜, 경제적 인간, 남성성, 남성 젠더, 문학사)

1. 서론—전기적 사실, 그리고 단절과 결락을 해석하기

곽하신은 1920년 5월 20일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나, 중학교부터 서울의 외갓집에서 기숙하면서 외삼촌인 시인 김상용에게 문학수업을 받았다. 1938년 18세의 나이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실락원〉이 당선되고, 1939년 『문장』에 〈마냥모〉, 〈사공〉이 추천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¹⁾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에 ‘조선여성들은 지금까지의 사대주의 적이고 노예적인 근성을 버리고, 확고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구축해야 한다’며 월간 『여성문화』를 출간했고, 1954~59년까지 희망사 편집장을, 그 뒤 『조선일보』 문화부장을 역임했다. 1951년 한국전쟁 중에는 ‘창공 구락부’의 일원으로 공군 중군작가로 활동했다. 1946년 4월 전조선문필가협회의 전위조직으로 창립되었던 김동리, 조연현, 유치환 주축의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보아, 해방과 한국전쟁의 와중에 그의 지향점은 소위 순수진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1946년 동국대 문리대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1948년 중퇴, 1957년 재입학 후 이듬해 졸업을 했다. 전후 장편연재소설로 〈여인의 노래〉(잡지 『희망』, 1953.11~1955.3), 〈무화과 그늘〉(『세계일보』, 1958~1959) 등이 있다.²⁾ 1960년대에는 번역번안물, 소년문학으로 방향을 틀어 〈소년 삼국지〉(소년조선일보, 1964), 〈소년 수호지〉(소년조선일보, 1967~1968) 등의 번안물, 〈내

1) 해방 전 발표 작품 편수는 많지 않다. 『동아일보』에 〈실낙원〉과 〈안해〉, 『문장』에 〈마냥모〉, 〈사공〉, 〈나그네〉, 〈신작로〉를 발표하였다. 일제 말기 한국어 글쓰기가 힘든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등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작품활동이 단절된 것으로 짐작된다.

2) 〈無花果 그늘〉을 재수록한 『한국문학전집 26』(민중서관, 1959) 뒤의 연보에 따르면 〈薔薇처럼〉(대구매일신보, 1955), 〈愛戀無限〉(국도신문, 1956), 〈흐르는戀歌〉(국제신문, 1958) 등의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마음 바다 건너)(1969~1970), 〈풍운의 성〉(소년조선일보, 1973) 등의 소년소설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35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절필하다가 2008년 4월 14일 영면했다. 소설집으로 『신작로』(희망출판사, 1955)가 있다.

위 전기적 사실에 비춰볼 때, 작가가 단편소설, 순수문학 위주의 작품 활동을 한 것은 식민지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기와 전후 세대를 다룬 몇 편의 단편, 신문이나 잡지연재소설, 1960년대에는 소년 대상 번역번안물을 비롯한 아동문학으로 작품활동이 수렴된다. 창작을 제외한 경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작가는 해방 후 잡지를 발간하거나 전후 잡지 『희망』과 『조선일보』 편집자로 일했고, 한국전쟁기간 동안 종군작가 활동을 하는 등 매 시기 한국사회의 변동에 문학인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나름의 응전력을 보여 왔다.³⁾

18세에 등단, 신춘문예와 대표 문예지 동시 등단이라는 한국문단사에서 이례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광하신을 단독으로 다룬 논문은 필자가 찾아본 바로는 한 편도 없다. 생전에 발간된 작품집 『신작로』를 제외하면 그의 단편들은 〈한국문학전집〉 여기저기에 일부 대표작들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고, 근자에 연천향토문학발굴위원회에서 발간한 『광하신 단편소설선집』, 장편 『무화과 그늘』(『한국문학전집』 26권, 민중서관, 1959)이 전부이다. 오히려 도서관 서지목록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광하신의 저작들은 일본 에세이류나 중국고전을 소년용으로 각색한 번역, 번안류이다. 그의 작가 이력과 생활인으로서의 이력⁴⁾ 역시 중간중간 단절되거나 빠진 부분이 수다하다.

3) 이런 이력들이 문사·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의식 때문이었는지, 작품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생활을 위한 방편이었는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

4) 예컨대 동국대 국문과 입학 후 휴학과 자퇴를 긴 기간 하다가 복학해서 학업을 마친 이유, 57년부터 병명이 불투명한 두통과 신경통으로 오랜 기간 투병했다는 사실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단절과 결락의 부분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식민지 시기-전후-60년대로 이어지는 광하신의 실질적인 작품활동 기간 동안 그의 작품세계는 시기별로 '지속적이지 않은', 오히려 '단절적인' 양상을 보인다. 가령 식민지 시기 발표 지면이 『문장』지에 집중된 점, 50년대 이후 작품에서는 식민지 시기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요설체나 향토어와 같은 문학언어의 실험이나 농촌 향토에 대한 형상화가 사라지고, 범속한 일상이나 젊은 남녀들의 연애심리를 다룬 몇 편의 단편, 세태풍속과 연애를 다룬 장편대중소설을 발표한 점, 60년대에는 소년소설, 번역번안류에 집중한 점이 그러하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 작품이 6편에 불과한데도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짙막한 총평이나 문학전집 뒤에 실린 해설은 식민지 시기 작품 경향에 한정되어 '치기어린 요설체 문장'을 특징으로 보거나 "여성의 입장에서 애정에 얽힌 내면갈등과 세태의 부조리"를 다루었다는 범박한 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나마 단편 형태로 존재하는 광하신 소설세계에 대한 한정된 평가를 지양하고, 전체 면모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식민지기와 전후로 시기를 크게 분절하고, 각 시기 작품세계의 특징을 로컬(식민 시기), 룬펜(전후), 경제적 인간(전후 일부 단편, 장편대중소설)이라는 세 좌표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좌표들은 시기나 작품경향을 놓고 볼 때, 단절(식민 시기와 전후)이면서 동전의 양면(전후 룬펜과 경제적 인간)처럼 더블(double)의 관계를 이루면서 작가가 매 시기 사회변동과 세태를 정확하게 포착했음을 입증하는 단서가 된다. 현대소설사 연구에서 잊힌 작가 광하신의 작품세계를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전후문학사의 주변을 복원하고자 하는 게 이 논문의 부차적 목적이다.

2. 로컬－『문장』지의 세계관

『문장』지에 실린 곽하신의 소설은 추천소설 〈마냥모〉(6호, 1939년 7월), 〈사공(沙工)〉(11호, 1939년 12월) 외에 〈신작로〉(24호, 1941년 2월) 〈나그네〉(7호, 1939년 7월)⁵⁾ 등 4편이다. 하층민이나 어린아이(소년)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점, 로컬-향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식민지 근대의 영향력에서 비껴나 있거나, 근대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멸해가는 것들에 대한 애정, 상실감을 기저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이 소설들의 공통점이다. 이 장에서는 일제 말기 『문장』지가 지향했던 로컬-향토의 발견, ‘고완미’로 지칭되는 이태준을 비롯한 『문장』지의 이념이 곽하신의 작품에도 모종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930년대 후반 소설의 흐름 중 하나는 전근대, 전통에 대한 지향성이다. 전통주의, 전근대주의, 향토-로컬의 발견 등은 30년대 후반 뚜렷한 흐름을 형성했으며, 정신적으로는 근대적 제도나 가치 체계, 식민질서에 대한 반발을 기저로 하고 있다. 『문장』지의 편집인이었던 이태준의 〈괘장냉〉이나 〈석양〉, 〈영월영감〉은 전근대적 삶이나 미의식에 대한 향수의식을 드러내고, 근대에 대한 환멸을 드러낸다. 소멸해가는 것들에 대한 연민, 근대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들에 대한 관심은 타율적인 근대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곽하신의 소설은 이런 『문장』지의 반(反) 근대주의, 미학주의, 이태준의 『문장강화』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언어와 소설형식에 대한 관심이라는 기초를 따르고 있다.

〈마냥모〉를 발표했을 때 이태준이 다음과 같은 추천사를 썼다는 것

5) 〈나그네〉는 1939년 7월 임시증간호, ‘창작32인집’에, 〈신작로〉는 1941년 2월, ‘창작34인집’에 실려 있다. 신진과 중진을 아우르는 문학 장을 짜려는 『문장』지의 기획에 신진작가였던 곽하신도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런 추론의 근거가 된다.

‘마냥모’ 佳作이다. 대복이가 흐뭇하다. 게으름 禮讚만은 아니다. 끝에 가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技巧로 싹둑 잘 짰다. 다만 대복이가 정자나무 밑에서 잠드는 데가 自己변호가 없이 좀더 天然스러웠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중간 중간 몇 줄씩 지인 데가 있기도 하지만, 너머 입심에 醉해버린 데가 많았다. ‘意識的’이란 느낌은 바늘만치도 찔려선 안 된다. 좋은 作品은 그런 ‘意識的 가시’가 돌혀선 안 된다.⁶⁾

이 작품을 추천한 이태준은 단순히 게으름을 예찬한 소설이 아니며, 특히 마지막 장면의 간결한 처리를 매우 뛰어난 기법이라고 칭찬한다. 하지만 ‘입심’, ‘의식적 가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평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기교를 경계하고 자연스러움, 진정성을 작품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마냥모〉는 경상도 지방의 농촌을 배경으로, 게으른 농군인 대복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그는 혼례를 치른 뒤 자기 뭇이 된 눈 세 마지기에 3년이 넘도록 자기 손으로 모를 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게으른 인물이다. 어느날 마냥모를 내는 일꾼들에게 가져다 줄 음식을 담은 함지를 지게에 지고 가던 중 정자나무 그늘을 만나자, 음식을 마음껏 포식하고 그 자리에 누워서 세상 모르게 잠을 자다가 아버지가 휘두르는 지게막대를 맞고 잠을 깬다는 이야기이다.

‘마냥모’는 ‘늦모’, ‘제철보다 늦게 내는 모’라는 뜻으로, 늦된 인물인 대복의 성격을 대변하기에 적절하다. 대복과 그를 둘러싼 환경은 근대 도시와는 거리가 있다. 이 소설은 근대의 시계 시간이 아닌, 때가 되면 모를 내고 거두어야 하는 농사일의 감각에 기초한 시간, 전통적 시간관이

6) 이태준, 『심사의 말』, 『문장』 6호, 1939년 7월.

지배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바보형 인물, 낙천적 인물을 부조해 내고 있다. 여기서 로컬-향토는 근대의 시간, 식민지적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이 아닌, 반(反)근대의 시간과 정서를 체현한 공간이다.

반(反)근대의 시공간으로서의 로컬-향토에 대한 친연성은 〈사공(沙工)〉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뱃사공인 침지는 떠돌이였으나 마을의 나룻배 사공을 하면서 그곳을 ‘고향’으로 여기고 산다. 배를 자기 것이라 여기는 이 노동자는 가진 자에 의해 자기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다. 배를 흥초시가 사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소설은 사공침지:늙음 VS 새로 온 사공 황태식:젊음과 강인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로컬-향토에서 낡은 것, 오래된 질서,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으로 엮인 계약관계의 소멸을 전경화한다. 결국 그는 소설 마지막에서 도끼로 나룻배를 부숴버린다. ‘나룻배’는 한때 사공침지의 밥벌이의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나룻배를 산 자의 것이다. 즉 ‘나룻배’는 사공에게는 생산수단 이상의, 자신과 일체된 정서적 유대감을 이룬 것이지만, 이미 돈과 노동력을 사고파는 근대의 교환 회로에 들어간 흥초시나 젊은 사공 황태식에게는 생산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룻배’를 둘러싼 이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공침지는 이미 근대의 회로 속에 들어간 나룻배를 제거하는 것을 택한다. 낡은 질서, 낡은 세대의 소멸에 대한 애상의 정조는 이태준의 소설과 유사한 바가 있다.

여기에 실린 이태준의 추천사는 다음과 같다.

곽하신군의 「사공」이 그리 탐탁치는 않다. 곽군은 우선 그 변(辯)의 수다스러움⁷⁾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이요, 그래야 플롯이 지금 어떤 형태로

7) 곽하신 소설언어의 이런 특성은 백철도 지적하였다. “현실도피의 경향과 함께 그 작품들의 특색은 요설체이다. 그 요설체만을 가지고 문단의 주목을 끌었다는 데 이 작가의 기술이 높았다는 기술(記述)이 된다.”는 지금까지도 곽하신 소설의 특성을 논할

발전한다는 것을 자신이 보고 만지고 하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은 쓴다기보다 만드는 것. 변(辯)에 취해가지고는 만드는데 방심하기 쉬운 것이다. 나룻배의 새 주인이 되었다는 홍생원이, 이해할 수 없는 목우(木偶)가 되어버렸다. 홍생원이 침지를 구태여 내어보내려는 하등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실증정신. 이것은 곧 소설의 정신이다. 이 점에서 실증화에 몰두하는 탐정소설을, 소설초심자로서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⁸⁾

〈사공〉의 추천사 역시 〈마냥모〉와 비슷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辯의 수다스러움’이 그것이다. 작가주석적 서술보다는 플롯전개의 개연성, 인물형상화의 팝진성을 ‘실증정신’이라는 말로 강조하는 것이다.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신작로〉(1941.2)를 보자. 이 소설은 로컬-향토를 배경으로 이성애 눈뜨기 시작한 사춘기 소년 소녀의 순수한 연애 감정을 그리고 있다. 정이를 좋아하는 17세 돌쇠가 주인공이다. 정이에게서 서울로 이사가게 됐다는 말을 듣고, 마음과는 다르게 어깃장을 놓다가 정이를 한 번 더 보기 위해 이삿짐을 날라주고, 문산 고모집에 간다는 핑계로 차를 타는 것이 스토리의 전부다. 소년 소녀의 연애 이야기에 감춰져 있지만, 돌쇠와 정이가 헤어지게 된 내력은 농촌 공동체에서 도시로의 이동, 경제적 차이, 근대(화)와 모종의 관련이 있다. 돌쇠에게 서울은 “집 좋구 길 좋구 일 안허구 하이카라 서방님들 있”는, 자신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위계화된 공간이다. 정이 집안의 서울행을 이끄는

때 항목 인용된다.(윤병로, 『광하신 해설』, 『신한국문학전집 8』, 어문각, 1976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는 〈안해〉(1938.4)에만 해당된다. 이 소설은 도입부 한 문장의 길이가 무려 17줄이고, 독백체 서술이 3페이지에 걸쳐 서술되는 등의 파격적인 문장 실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 다른 소설들까지 ‘요설체’로 확대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8) 이태준, 『小說選後』, 『문장』, 1939년 12월, 106쪽.

정이 오빠는 양식 구두, 즉 근대 신문물의 대리자로 상징된다. 정이네가 로컬-향토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수단은 도라꾸(트럭), 자동차, 기차 등 근대 문물이다. 돌쇠와 정이의 경제적 차이는 복장으로 드러난다. 서울로 가는 정이의 복장은 “하얀 신 하얀 버선에 옥색치마, 갑사적삼, 머리 빗고 분바르고 양산을 쓴” 데 반해, 돌쇠는 “중이적삼 네물째 입은” 초라한 행색이다.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표면적 주제 이면에 정이네와 돌쇠의 경제적 차이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김유정의 농촌소설들과 유사하며, ‘신작로’라는 근대-도시로의 이동성을 매개하는 길, 자동차, 트럭(도라꾸), 버스와 같은 근대 문물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최명익의 소설 〈봄과 신작로〉와 모티프가 비슷하다. 단 근대 이동수단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소설 마지막에서 돌쇠 역시도 버스를 타고 일시적이거나 집을 떠나면서, “속력이 빨라지기 시작이자 앞으로도 옆으로도 바람 몰려와서 함부로 시원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년화자를 매개로 한 근대 문물과 이동성에 대한 동경과 사투리, ‘애삼악스럽게’, ‘뒹박처럼’, ‘팔을 탄다’와 같은 토속어의 구사가 착종하는 이 작품은 근대에 대한 동경과 좌절이라는 양면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듯 싶다. 특히 토속어는 이태준의 평대로라면 ‘변의 수다스러움’이나 ‘입심’, 언어적 기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근대-도시로의 이동이 불가피해진, 당시 현실에 대한 수사학적 반동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처럼 『문장』지에 발표된 곽하신의 소설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비애, 전근대적인 시간의식, 로컬-향토에 대한 지향성을 뚜렷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일제 말기 문학의 한 흐름인 반근대의 미의식을 구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룸펜-전후 남성(성)의 형성(1)

해방 후 광하신은 잡지발간과 같은 대외적 활동에 주력하며, 몇 편의 수필과 단편을 발표했다. 한국전쟁기에는 대구, 부산을 거점으로 중군 작가로 활동하면서 전쟁 기간 발간된 잡지에 대여섯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⁹⁾

전후 소설의 경향은 식민지 시기 작품과 뚜렷이 구별된다. 1950년대 말 광하신의 소설에는 ‘룸펜-지식인’이 등장하는데, 이는 전후 한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다.¹⁰⁾ 1957년부터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부흥

9) 〈한국전쟁기 문학/수기/제도자료집〉에 수록된 광하신의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치녀애장(處女哀章)〉(『전선문학』 3호, 1953.2.), 〈여비(旅費)〉(『현대소설선』, 수도문화사, 1953.6. 원래 피난지 부산에서 발간되었던 『수도평론』(4호까지 발간) 문예란에 실린 것을 재수록한 선집이다.), 〈남편〉(『전시한국문학선-소설편』, 1954.12.10.), 〈市場稱話〉, 〈貰房〉, 〈딸〉(백철 엮음, 『중견작가 掌篇소설15인집』, 글벗집, 1956) 그 외 전쟁기 광하신이 발표한 작품으로는 〈떠나는 날〉(『연합신문』, 1952.5.), 〈혼신〉(『연합신문』, 1953.1.), 〈죄와 별〉(『자유세계』 9호, 1953.4.), 〈골목집〉(『문예』 16호, 1953.6.)이 있다.

(위 자료의 출처는 〈한국현대문학위키-한국문학작품연표〉이다.

<http://ko.kliterature.wikidok.net/wp-d/581ad6a0a00eb5922ac66e08/View>

이중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 발표자가 확인한 바로 〈치녀애장〉은 광하신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김말봉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며, 『김말봉 문학전집』의 작품 연보에 올라가 있다. 수정이 필요하다.

10) 1950년대에 대다수 인구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였다.(80%), 반면에 생산이나 서비스, 사무나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20% 정도에 불과했다. 1950년대 내내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수는 1955년 37.5%, 1960년 36.2%로 그 비율이 낮다. 대다수 사람들은 실업 내지는 반실업 상태에서 생활하였다. 1958년 초 완전실업자와 농촌의 잠재적 실업자를 합한 전체 실업자 수는 420만명, 1960년 450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4-1950년대 후반기의 한국사회와 이승만 정부의 붕괴』, 도서출판 오름, 1998, 24-25쪽 참고) 전후 1950년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서 주된 물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미국의 대한원조였다. 이 원조의 80% 이상이 구조적 성격의 소비재이거나 그 원료였다. 이를 통해 원료가공형 소비재산업(이른바 면방, 제당, 제분이라는 3백산업)이 발전하였다. 수입대체 소비재 산업화의

재건사업의 추진으로 전쟁 전 수준으로 진정되었던 경제가 1958년경 다시 불황에 들어섰다. 전후 한국사회의 경제불황과 대학생 등 고학력 졸업자의 증대는 사회적 문제를 낳았고, 그 지점에 '실업'과 '롬펜'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채만식의 〈레디 메이드 인생〉, 유진오의 〈오월의 구직자〉 등 우리는 식민지기 소설들에서도 실직, 롬펜이 양산되는 현실을 그리거나 풍자한 소설의 계보를 갖고 있다. 곽하신의 소설이 이런 소설들과 구별되는 점은 롬펜-지식인의 내면이나 우울을 그려 당대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취업 전쟁에 나선 롬펜의 민낯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1950년대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혹은 각자도생의 길을 택한) '경제적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제, 관리하면서 자기 삶을 이어가는 중간관리자도 아니다. 오랜 실직과 구직으로 인해 절박해진 이들은 인간다움과 도덕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조금이라도 내게 이익이 되는 바를 좇”는 경제적 인간의 등장을 〈층(層)〉(1959)은 보여준다. **산업에 영업과장 자리가 나자, 친구 윤동수가 취직운동을 부탁한다. 나는 이미 직장이 있지만, 윤동수는 오랫동안 실직상태였다. 그런데 나는 친구와의 우정을 저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가로챈다. 우정보다 계산가능한 교환관계를 우선시한 것이다. 사실을 알게 된 윤동수가 찾아와 분노하지만, 나는 그런 윤동수를 이해할 수 없

진전은 상대적 생산과잉 현상을 낳았다. 섬유, 식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 시설과잉과 과당경쟁이 1957년부터 드러났고, 미국의 원조가 1957년 이후 격감하면서 생산이 침체되고 성장률도 둔화되기에 이른다. 1950년대 말의 불황은 민생안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생산이 정체되고 실업률이 50%를 웃도는 상황은 정치적 경직과 부정부패로 연결되어 결국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분석이다.(김대환, 『1950년대 후반기의 경제상황과 경제정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4-1950년대 후반기의 한국사회와 이승만 정부의 붕괴』, 209쪽, 222-223쪽)

다. 타인의 처지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능력이 결여된 것이다. 나의 계산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가고 내 자리는 운동수에게 물려주면 된다.”는 셈법으로 나타난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정의로운 것이라 여기는 사고방식, 요컨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맹아적으로나마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행(不幸)〉(『자유문학』, 1956.8), 〈취직(就職)이야기〉(『신태양』, 1959.6)도 이 룬펜소설의 계보에 해당한다. 〈취직이야기〉는 3년 동안 구직운동을 하는 태훈이 주인공이다. 지인으로부터 취직 확약 내지 언질을 받은 지 3달이 지났지만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는 취직이 여의치 않자 불안, 우울증, 허약함, 조급함을 아내에게 투사¹¹⁾함으로써 해소한다. 〈불행〉의 최근 역시 일 년 남짓 구직활동을 한다. 그는 가까스로 취직을 하지만 대학까지 나온 고학력인 그에게는 맞지 않는 “노동력이 강한 직공” 일이다. 그런 자리마저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학력 지식인들에게 적합한 소위 사무직 일자리가 많지 않았던 전후의 경제상황을 반영한다. “대학 나온 사람들 계층에도 실직자가 많은 까닭이 애써 공부해 가지고 써먹지 못하고 버르고만 있기 때문”이고,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 들고 행세하기에는 너무나 까다롭고 차디찬 현실”이다. 노동을 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와 기대는 또다른 현실에 부딪혀 좌절된다. 역설적이게도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이기 때문이다. 사측이 제시하는 근거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학력이 없는 사람이 받는 보수 정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봉급 기준이 무너지는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소설 내적으로 보면 기대와 기대 지평의 좌절에서 오

11) 광하신 소설은 주로 초점화자가 남성이다. 이 초점화자의 눈에 비친 여성, 특히 아내들은 수동적이거나 실직 상태에 놓인 남편의 불안이나 히스테리를 받아주는 수동적 존재이다.

는 아이러니를 눈여겨 볼 수 있겠지만, 당시 한국사회의 기형적 경제구조, 학력자본에 걸맞은 일자리의 부족 현상이 가족과 친구같은 친밀한 관계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 ‘룸펜’ 소설들은 50년대 말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허약한 남성(성)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룸펜 소설의 창작 배경에 작가의 실제적 경험이 녹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생존의 장이 로컬-향토에서 도시로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을 뒷받침할 토대가 마련되지 못한 저개발 자본주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젠더/지식인은 자신의 무능력과 불안을 여성/아내에게 투사하거나 도덕이나 친밀성보다 생존을 도모하는 길을 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후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는 곽하신의 195-60년대 신문이나 잡지 연재소설의 지극히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스토리라인이나 인물들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 장에 살펴볼 〈여인의 노래〉, 〈무화과(無花果) 그늘〉은 한국전쟁기, 그리고 전후 청년 세대의 생존전략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있다. 곽하신의 전후 소설에 등장하는 남성인물들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와 결합된 이상적 남성성과는 거리가 멀다.¹²⁾ 입신출세를 위해 동료를 배신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연애관계를 이용하는 성취지향적인 남성인물들이 등장하는 게 특징이다.

12) 조지 모스는 근대 민족의 탄생과 남성성이 연관되는 양상을 검토하면서 이상적인 남성의 이미지가 국민이나 숭고함, 전쟁 등 민족주의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고 밝혔다. 조국을 위한 죽음과 희생이라는 전사 이미지를 통해 민족주의가 완성되었다. 자본주의, 민족-국가, 노동과 개혁 전쟁을 위한 강인하고 아름다운 몸은 남성성의 이상형으로 채택되었고, 동시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몸이 되었다. (조지 모스, 『남자의 이미지』, 이광조 옮김, 문예출판사, 2004, 184-228쪽) 곽하신의 전후 소설은 당시 지배 담론이 구축하려 했던 국가 재건을 주도하는 강한 남성성, 이상적 남성성과는 다른 남성상을 현실적으로 재현하였다.

4.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경제적 인물의 등장—전후 남성(성)의 형성(2)

한국전쟁기, 그리고 전후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및 이들에 대한 성별 정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곽하신의 전쟁기, 전후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은 한국전쟁이 여성과 남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포착하고 있다.

〈처녀애장(處女哀章)〉은 곽하신이 중군작가로 활동하던 전시기에 쓰인 작품이다. 이 소설은 부모의 정략결혼 등쌀에 밀려 집을 나간 여성의 일인칭 독백으로 서사가 전개되며, 청자로 설정한 선생님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나는 경식이라는 청년과 어렸을 때부터 맺어준 약혼 비슷한 상태로 지냈는데 전쟁은 이 여성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경식이 가 징집되어서 나가고, 집안이 어려워지자 부모는 경식과 일가인 윤수와 결혼을 강요한다. 나는 “양갈보가 되란 말”이냐고 저항하다 기출을 하고, “어느 날도 모르구 험수룩한 뱃사람에게 바루 여기서 처녀를 바”친다. 이유는 윤수에게 처녀를 바치기 싫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협한 논리를 펴고 있고, 성매매에 뛰어드는 여성의 심리에 비약이 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 여성이 살아남는 길이 결혼 아니면 성매매밖에 없던 당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딸을 교환하고, 딸인 나는 자신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섹슈얼리티를 방기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교환 내지 증여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전쟁기에 부산 피난지에서 발표한 소설 중 하나인 〈골목집〉(『문예』, 1953.6)도 부산 서면 하꼬방에 살고 있는 성매매 여성을 다룬다. 소설에

서 언니와 나는 진짜 자매가 아니라, 성매매 업소에서 같이 일하는 관계이다. 언니는 “누구의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를” 아이를 임신 중이고, 나(명이)는 언니의 해산비와 산구완비를 얻기 위해 손님의 돈을 훔친다. 이 작품 역시 전시기 하층 계급 여성들의 삶을 성매매 여성으로 초점화하여 그리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까지 고려해 1950년대 성매매 여성의 수는 적어도 15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규모의 성매매 여성의 수는 1955년 전국 15세 이상 39세 미만 여성인구 418만 1616명 가운데 3.6%를 차지한다.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원인은 99%가 생활고이고, 나머지는 외적인 강제, 즉 폭력, 공갈, 유인 등이거나, 드물게 실연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경우가 있었다.¹³⁾ 이런 상황을 반영한 작품이 <치녀애장>과 <골목집>이다. 한국전쟁기 여성의 삶을 ‘성매매 여성’을 초점화하여 그리는 방식은 장편소설 <여인의 노래>에서 더 구체화된다.

<여인의 노래>(1953.11~1955.3, 총 17회)는 곽하신이 편집을 맡았던 잡지 『희망』¹⁴⁾에 연재되었다. 직원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 온 경옥은 남편과 모두 한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남자동료인 도윤과 언쟁을 한 후 짐을 싸서 합숙소를 나온다. 도윤은 원래 서울에서 술집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던 여자와 동거를 하다가 부산으로 내려와서 그녀와 협잡하여 한때 연인이었던 음전을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다. 소설은 경옥이 위기에 처한 음전을 찾기 위해 세구와 세구의 친구의 여동생인 윤희와 함께 동분서주하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전쟁은 여성들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속자는 세구를 차지하기 위해 동창이자 친

13)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한국전쟁과 젠더』, 서해문집, 2004, 137쪽

14) 월간 『희망』은 1951년 7월에 창간되어 1962년 3월호로 중단되었다. 전지 피난지인 부산에서 잡지로서는 최초로 창간된 월간지로서 1958년과 1959년에 휴간을 거듭하기 전까지 1952년 3월호를 제외하고는 매호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발간되었다.

구인 경옥을 따돌리고 그녀의 일자리까지 가로챈다. 세구가 이용가치가 없자 그를 배신하고 딴 남자와 동거하고, 도운과 음모를 꾸민다. 윤희는 세구가 자신의 사랑 고백을 거절하자, 자신의 처녀성을 충동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바친다. 섹슈얼리티와 생계를 맞바꾸거나 성 윤리의 혼란 상황에서 일탈을 하는 이 여성들에게 전쟁 이전의 도덕 규범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소설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빠지는 메커니즘을 사실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경옥은 한때 동료였던 도운을 찾아가 음전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우선 음전이 진 빚 50만원을 갚으라고 한다. 돈이 없는 경옥은 도운에게 그 돈을 빌리는데, 사실상 2할 이자가 붙은 6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경옥은 그 빚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해, 음전과 똑같이 성매매 여성이 된다. 이런 교환관계에 개입하여 도운과 음모를 꾸며 경옥을 전락시키는 존재는 다름 아닌 숙자이다.¹⁵⁾ 이처럼 〈여인의 일생〉에는 성적 충동과 위협에 노출된 ‘가련한’ 여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하고 우정과 연대보다는 모함과 협잡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이런 정황은 남성인물들에게서도 포착된다.

세구는 음전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숙자, 윤희, 경옥과 애정 관계를 형성하지만, 도운의 음모, 숙자의 배신에 번번이 당하는, 어찌 보면 사건 해결에 무능력한 존재이다. 세구는 도운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임원을 해서는 임원비를 해결 못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15) 도운과 결탁한 숙자는 경옥을 구슬려 빚을 갚기 위해서 ‘매신(賣身)’이 불가피하다고 설득한다. “살기 위해서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무슨 짓이든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경옥은 처음에는 강하게 항의하지만, 결국 숙자와 함께 나간 경옥의 손에는 60만원짜리 보증수표가 들려 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음전이 경옥을 찾아 나서지만 경옥이는 편지만 남기고 어디론가 떠난 후이다.

무능력하다. 경옥은 “두 여인(경옥 자신과 윤희) 속에 끼어 있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변동도 부담도 없는 도학자라면 이런 사람은 내가 다시 없는 그들로 생각하고 있을 대상이 못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에게의 나의 지향은 크면 클수록 크고도 어쩔 수 없는 공허로운 내일을 옹기마련하는 어리석은 짓이나 아닐런지?”라며 세구의 우유부단함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음전과 경옥은 세구의 치료비를 구하러 애를 쓰다가 결국은 도윤에게 가서 3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대신 음전 자신이 도윤의 지정대로 매신(賣身, 성매매)을 하게 된다. ‘14장 혼선(混線)’(1954.12, 14회)에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경옥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모든 것이 세구 때문에 일어난 사태”라는 것이다. 음전과 경옥을 성매매로 이끈 근본적인 원인은 세구의 우유부단함과 경제적 무능력에 있다. 그리고 세구와는 정반대인 도윤의 돈에 대한 욕망 추구 때문이다. 경옥은 이런 상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 특히 성별 차이가 차별로 나타나는 여성문제임을 간파하고 있다. 인간성과 사회의 도덕률이 심문받는 전시상황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 즉 자원이 없는 저학력의 가난한 여성들이 남성에게 이용당하거나 문제 상황을 몸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음을 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도윤은 한때 연인이었던 음전, 직장동료였던 경옥을 돈을 빌려 주는 대신 성매매 현장에 팔 정도로 악의 기원을 이룬다. 여기서 도윤은 끊임 없이 음모를 도모하고, 그 음모를 실행에 옮기고, 타인의 비극에 둔감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서 예의 ‘경제적’ 인간이다. 우리는 곽하신의 소설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라는, 근대 법체계가 국가주의가 아직은 통용되지 않은 전시기(戰時期)를 배경으로 인간의 자연권¹⁶⁾을 부정적으로 체현한 인물을 목격하게 된다. 전시기라는 만인에

16) 홉스는 자연권과 자연법을 구별하면서 자연권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¹⁷⁾에서 도운은 여성의 성을 착취함으로써 생존과 처세를 취한다. 그런데 그의 자세는 단순하게, 자신이 '자연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그는 세구와 심리적 경쟁관계에 있고, 성착취를 고리대금과 연결시킬 만큼 경제적 이익을 따른다. 이 점은 세구를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경옥으로부터 세구를 빼앗아 독차지하고, 경옥을 성매매로 내모는 데 앞장 선 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 일차적으로 오염되고 희생당하는 존재는 여성이지만, 각자도생의 행로 속에서 남성/여성의 젠더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연대'와 '공감'이 아닌, '협잡'과 '탐욕', '경제적 인간'¹⁸⁾이

위해 원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고, 자연법이란 이성애에 의해 발견된 계율 또는 일반규칙이라고 말한다.

17) 사람들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힘이 더는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폭력이나 책략을 통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려 든다. 이런 행위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원인을 인간의 본성에서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경쟁이며, 둘째는 '확신의 결핍'이며, 셋째는 명예에 대한 욕구다. 경쟁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게 만든다. 자기 확신의 결핍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게 만든다. 명예는 명성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게 만든다. (중략) 결국 모든 사람을 떨게 만드는 공공의 힘이 없는 상태에 사는 한 인간은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중략) 그러므로 만인이 만인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를 보이는 전쟁 상태에서는 근면함이 설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봐야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에서는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의 개념이 없다고 한다. 이런 전쟁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홉스는 인간의 이성에서 찾는다.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권리를 상호양도하는 것을 홉스는 '계약'이라고 부른다. 천부의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연권을 포기하고 사회계약을 체결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그 국가의 절대적 힘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았다.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신재일 엮어 옮김. 서해문집, 2007, 94-96쪽, 101쪽)

18)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은 특히 주류경제학에서 오로지 경제적 합리성에만 기초를 두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을 말한다.

살아남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이 대중연애소설은 이면적으로 폭로하는 셈이다.

경제적 이익과 권력을 지향하는 성취지향형 인물은 전후 남성-젠더의 출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무화과 그늘〉은 손종호-최경옥-황규찬, 최경옥-손종호-윤메리, 최경옥-황규찬-혜숙과 같은 한때 대학의 스승과 제자였던 인물들 간의 삼각관계가 성립되고 깨지고를 거듭하는 전형적인 대중연애소설이자 세태소설이다. 무엇보다도 근대 법체계와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난맥상이 전후에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화과 그늘〉에 등장하는 대학교수(강사)인 손종호는 지성, 양심, 건전성을 중시하는 인물로서 학교 경영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 반면 직장동료인 황규찬의 목표는 출세, 손종호의 파멸이다. 그런데 자본가인 경옥의 아버지 최 사장이 보기에 손종호의 선함이 미덕인 것만은 아니다. 손종호의 “고지식하고 착한” 성격은 약점으로, 황규찬의 적극성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여인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지성, 양심, 선함은 오히려 약혼녀를 빼앗기고, 사회적 지위(고등학교 교장)와 경제적 능력을 박탈당하는 무능력으로 귀결된다. 소설은 집요할 정도로 손종호가 하는 일마다 방해로 하고, 그를 경제적, 사회적인 루저로 전락시키는 황규찬의 성격이 부분적으로는 한국전쟁에 기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황규찬은 자신의 악행을 말리는 누이동생에게 “너와 나, 밥을 며칠씩 굶으며 고학을 할 때 날마다 밤마다 뭐라구 맹세를 했지? 살과 뼈를 잡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남에게 지지 않는 생활과 지위를 잡아보고야 말자고 울면서 얘기하지 않았어?”¹⁹⁾라고 반문한다. 왜 자신을 저주하

19) 곽하신, 『무화과 그늘-한국문학전집26』, 민중서관, 1959, 402쪽
앞으로 이 작품의 인용은 위 책의 쪽수를 따른다.

고 못 살게 구냐는 손종호의 항변에 황규찬은 아래와 같이 답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형이 밍거나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출세를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한 행동인 것이요. 비난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내가 딛고 일어서는 터전에 해필 손형의 아끼고 사랑하던 핏방울이 놓여 있었다는 우연한 현상인 것 뿐이요. 자기를 위해야 한다는 숙명은 남이 고난을 받게되는 자리라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요. 노골적으로 말해서 손형의 자리를 하나도 빼지 않고 내려왔다면 나는 지금 어머니와 누이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한 개 말단 훈장으로 허덕이고 있을 것이요.”(571~572쪽)

황규찬이 손종호에게 고아원 운영을 위해서 진 빚 백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할 때 손종호는 아내 메리와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빚도 엄밀히는 손종호에게 고아원 운영을 부탁한 옛 학교 동료 정성욱이 진 것이다. 황규찬이 그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궁핍해서가 아니라 국제교장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기 위해서 소위 ‘운동’을 하는 데 자금이 딸리기 때문이다. 이미 손종호가 애써 설립한 고등학교의 교장 지위를 가로챈 그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나 명분보다는 돈과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 손종호를 다시 나락에 빠뜨린다.

‘누구를 위하여 너는 살고 있느냐?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노릇은 위선이 다! 자기 학대인 것이다!’ (568쪽)

“아무리 딱한 일이라고 해도 나를 구제하는 데 계으를 수는 없는거요.” (568쪽)

“손형과 내가 별개의 인물이듯이 손형의 돈과 내 돈은 별개의 내용을 가진거요. 손형이 아무리 달리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해도, 나의 급한 일과는 전연 관련시킬 수 없는 말이 아니겠어요?” (571쪽)

“그 돈을 갚으려 들면 나는 단 한가지 고아원을 팔아버리거나 포기하는 수밖에 없오. 외국에 여행을 한다는 사치를 위해서 손중호를 완전히 몰락의 구렁에 밀어넣고 백여명의 고아들을 거리로 내쫓아야 옳겠어요?”
“돈을 받는 일만 해도 벅찬 일인데 돈을 만드는 경위까지야 어떻게 생각을 할 겨를이 있겠어요?” (571쪽)

위 예문들은 황규찬의 내면 심리와 손중호의 비난에 황규찬이 답하는 내용이다. 그는 타인에 대한 연민과 구제를 ‘위선’과 ‘자기 학대’라고 여기고, 나의 ‘구제’와 “나의 급한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이기적 인물이다. 또한 그는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여성을 이용하고 교환한다. 손중호의 약혼녀였던 경옥을 가로채 결혼을 했지만, 경옥의 아버지가 파산을 하자²⁰⁾ 그 회사를 넘겨받은 고리대금업자 서광식의 조카인 혜숙과 모종의 음모를 꾸며 이혼한 후 혜숙과 결혼을 한다. 그에게 결혼은 연애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부와 지위상승을 위한 계약일 뿐이다. 이처럼 소설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약육강식의 경제적 인간이 전후 남성 젠더로 구축되는 과정을 선악의 대립이라는 대중소설의 형식을 빌려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 소설은 선의 승리, 악인의 몰락이라는 대중소설의 도덕적 결말을 택하지 않는다. 손중호는 약혼녀와 아내를 잃었을 뿐만 아니

20) 경옥의 아버지 최사장이 파산에 이르는 과정은 전후 기형적인 자본의 형성과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최사장의 현재 사업규모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왕십리에 공장이 있고, 안양에 있는 산판을 처분해 고등학교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회사직원이 산판에 있는 나무를 벌목해 파는 바람에 제대로 감정가를 받지 못 하자 황규찬이 나서 감정사무 담당자와 결탁해 감정가를 조작한다. 또 회사직원이 서류장부를 조작해서 거액의 횡령을 하고 고리대금업자에게 회사를 저당잡힌 채 도망을 치고, 밀수품 적발까지 걸려 파산하게 된다. 지금의 흐름이 투명하지 못 하고, 밀수와 고리대금업과 같은 비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런 와중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한 사람들(황규찬, 고리대금업자 서광식)이 성공하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라, 자신이 설립한 고등학교 교장직에서도 황규찬의 음모로 밀려나고,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고아원마저도 빼앗긴다. 선한 의도, 공공적 목적이 오히려 패배하는 현실을 전경화하는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장 제목이 '무화과 그늘'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황규찬이 혜숙과 결혼 후 신혼여행 겸 국제교장회의 파견 대표로 나가게 되어 서울역에서 기차에 오르는 같은 날 모든 것을 잃고 귀향하는 손종호도 같은 기차에 탄다. 문제의 인물들이 '우연히' 같은 기차를 타고 떠난다는 설정은 이광수의 『무정』을 언뜻 떠올리게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기차행은 문명, 개화, 계몽을 향한 밝은 미래가 아니다. 선한 의도, 도덕적 정의는 전후의 속악한 세태에서 '무화과'처럼 실현될 수 없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승자는 황규찬이다.

〈여인의 일생〉, 〈무화과 그늘〉은 텍스트 표층적으로는 청년 남녀 간의 연애를 그린다. 하지만 순조롭지 못한 남녀 간의 연애, 가령 만남과 어긋남,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음모 등의 스토리라인 이면에서 서사를 추동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이윤 추구의 원리를 좇는 도구적 관계이다. 전후 승자독식의 또 다른 '전쟁'에서 패배한 남성(성)은 아무리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을 취하더라도 결국 허약하고 무능력한 채로 자멸한다. 이 점은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성)은 다른 여성을 적으로 삼아 남자나 돈을 취하거나, 남성의 이익을 위한 수단(성매매, 정략결혼 등)이 된다. 때문에 두 소설에서 착한 주인공은 구제받지 못 한다. 〈여인의 일생〉의 세구는 자신을 사랑하는 여성들이 성적으로 훼손되거나 매매되는 현실을 알지 못하거나 현실에 대응하지 못한다. 〈무화과 그늘〉의 손종호는 사랑하는 여성과 사회적 지위를 경쟁자에게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파산한다. '무화과', 즉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두 소설은 순수함이나 열정, 진정성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 하고, 돈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취지향적 인간, 경제적 인간이 전후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사회에 부상(浮上)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다.

‘절대악’이라고 부를 정도로 여성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가고, 남성동맹의 가능성마저 차단한 채 성공을 위해 질주하는 남성은 1960년대 이후 구체화된 한국사회의 ‘계발/개발’형 남성주체의 원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괄하신 대중소설의 의미가 있다.

5. 결론—잇힌 작가의 문학사

이 논문에서는 괄하신 소설의 여정을 좇으며 그의 작품세계가 지속성보다는 비연속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 시기별로 당대 문학 장의 특성이나 사회변동을 포착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식민지 시기 로컬-향토의 특징은 토속적 어휘와 심성의 구현, 전근대적인 세계(관)에 대한 애정과 비애의 정서로 요약된다. 필자는 이런 특징이 『문장』지가 추구했던 세계관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 1950년대 말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을 경유해 전후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에 진입한 한국사회의 현실은 한편으로는 룬펜, 루저 남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공리주의나 승자독식의 세계관을 체현한 남성이라는 대조적인 남성-젠더의 출현으로 형상화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괄하신의 소설에 대한 상투적인 평가, 즉 “여성의 입장에서 애정에 얽힌 내면갈등과 세태의 부조리”를 다루었다거나 여성의 수난을 그렸다는 평가는 교정되어야 한다. 이런 평가는 일제 말 기 로컬의 형상화, 비록 신진작가의 미숙함은 있지만 향토어의 구사에

공들였던 작가의 특징을 아우르지 못한다. 또한 여성 수난이라는 낮은 클리셰는 한국전쟁과 전후 한국경제의 파행성과 같은 사회변동이 어떻게 여성들의 지위와 성적 정체성을 무너뜨렸는지, 전후 국가주의 재건 과정에서 남성 젠더의 상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모파한 전후 작품세계의 특징을 탈역사화하는 것이다. 광하신의 전후 장편대중소설은 선한 주인공이 보상을 받는 권선징악적 결말을 취하지 않고,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악인의 등장을 전경화함으로써 1950년대 전후(戰後)의 특성을 날카롭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하신 작품세계의 특징이 잡지와 신문 편집인이라는 저널리스트로서의 감각에 기인한 것인지는 더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사정은 별개로, 60년대 후반, 소년소녀문학이나 번역번안물까지 고려해도 70년대 초반에 작품활동이 단절되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 했던 식민지 시기부터 50년대 말까지의 작품세계, 특히 매 시기 사회 변화에 응전하려 했던 작가의 시도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연보와 작품서지 목록의 오류나 불분명함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광하신은 현대문학사에서 군소작가로 범주화되어 연구목록에서도 잊힌 작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 시기 한국어로 글쓰기, 문학 하기의 마지막 세대에 해당한다는 점, 저널리즘적 세태묘사, 대중소설의 양식을 빌려 전후문학의 범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문장』, 문장사, 1939, 1941.

곽하신, 『무화과 그늘-한국문학전집26』, 민중서관, 1959.

연천향토문학발굴위원회 편, 『곽하신 단편소설선집』, 도서출판 고글, 2015.

『정통한국문학대계 30-이봉구, 김이석, 곽하신』, 어문각, 1986.

2. 논문과 단행본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한국전쟁과 젠더』, 서해문집, 2004.

조지 모스, 『남자의 이미지』, 이광조 옮김, 문예출판사, 2004.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신재일 엮어 옮김, 서해문집, 200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4-1950년대 후반기의
한국사회와 이승만 정부의 붕괴』, 도서출판 오름, 1998.

Abstract

Local, Jobless Person, Homo Economicus, Three Axis of Kwak Hashin's Works

Kim, Yang-Sun(Hallym University)

This paper seeks to expand the scale of literary history by restoring and analyzing the whole aspect of Kwak Hashin's works, which has so far been studied little. For this purpose, I notice the rupture of discontinuity of his works which is greatly divided into the colonial period and post Korean war period.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orks can be analyzed based on the three axis, local(colonial period), jobless person(post-war period), and Homo Economicus(some short stories, and popular novels in post-war period).

In Chapter 2, 'Local-the world of *Munjang*', I evaluated that Kwak Hashin's novel, which had been published in the late 1930s in the Journal of *Munjang*, embodied anti-modern aesthetic consciousness, as clearly revealing the sorrow for disappearing things, the pre-modern sense of time, and the preference for local. In Chapter 3, 'Jobless Person' and Chapter 4, 'The State of All People's Struggle against All People, The Appearance of Homo Economicus', the Korean society in late 1950s, which entered underdeveloped capitalist countries after Korean war, can be characterized by two contrasting male-gender, one is the jobless, incompetent male, and the economic man on the other hand. In the late '50s, Lumpen(=Jobless Person) novels showed the problems of the Korean economy through incompetent male character. The intelligent men took the path to survival rather than morality or intimacy, projecting their own incompetence and anxiety to women/wives. In the popular novels *Women's Song* and *The Shadow of the Fig Tree*, achievement-oriented male figures who betrayed their colleagues, and exploited women's sex by using love relationships to rise to the top appeared. They can be defined as the Homo Economicus who embody the state of universal struggle against all people. These novels showed the formation of the masculinity in post Korean war period, which pursued the survival of the fittest, borrowing form of popular novel.

As we have seen so far, Kwak Hashin needs to be re-evaluated as an writer who expanded the modern literary history in the outside of literature. He was the last generation writer written in Korean late colonial period, and provided the model of postwar literature by borrowing the form of journalism and popular novels.

(Keywords: local, postwar novel, jobless person, Homo Economicus, masculinity, male-gender, literary history)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17일

심사완료일 : 2020년 8월 4일

수정완료일 : 2020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12일